

시론



오 주 섭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공동대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 사실상 어려워

최근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2년 차를 앞두고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충청지역 언론 기사와 지난 8월 말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선포식을 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는 기사를 접했다.

갑수목 심화되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불균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역대 정부 마다 광역자치단체 간 경제공동체, 메가시티, 행정통합, 특별자치도 등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 광주·전남행정통합 입장 밝히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이재명정부의 5급3특 지역 균형발전전략에 어떤 지역이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만능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나후되고, 소외된 광주전남의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광주·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통합에 달려있다

전남행정통합 만큼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는 문인 북구청장이 유일하다. 앞으로 지역민과 언론,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은 시·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5급3특 지역 균형발전전략에 강력한 정책적 대안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사례

과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간 ‘특별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있었으나 규약 폐지로 무산됐다. 현재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시민이 직접 통합 홍보 및 참여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구상이 중앙정부 전략(5급3특)과 어떻게 조율될지, 또 내년 지방선거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통합 이후 권한 이양, 재정 통합, 통합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제(메가시티) 설립 또는 행정통합 방식(계층 구조, 권력 분배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설계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부산경남은 ‘메가시티’를 넘어 행정통합+초광

역경제동맹 병행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대구광역시·경상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고, 2025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경북도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총 272조문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 내용에는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자율성 강화 등의 주요 특례가 담겨 있으나 최근 정치 상황과 대구, 경북 지역 간 이견으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 두 사례를 볼 때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광역연합 보다 더 어려운 게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전국 단위의 제도 개편, 즉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비로소 추진될 수 있다. 행정통합이 성공한 해외 사례로는 일본 오사카도 의·정개편 모델(광역통합형)과 영국 메트로폴리탄 카운티 모델이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와 함께 헌법 개정 선도해야

따라서 광주전남이 타 지역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선도해야 한다. 즉 헌법 제1장(총장) 제1조 ③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고 명시하는 등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거듭 강조하건대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쇠도끼가 내 꺼예요”



문화난장



이 현

아동문학자

“얼굴이...”

다른 형제에 비해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있었던 터라 몸에 이상을 느껴 찾아가던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열른 가보라는 말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해도,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 성격 좋은 남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하루 밤 사이에 새까맣게 변해버린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차 싶었다. 내 목숨이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지내 온 시간만큼이나 목숨 또한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부모, 형제, 남편, 자녀, 친구, 모두의 목숨인 것 같았다. 결국은 특별한 일 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내 몸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 또한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생각이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데,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그만 하나 뿐인 쇠도끼를 연못에 퐁당 빠뜨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금도끼와 은도끼’는 ‘아송우화’에 수록된 고대 그리스의 전래동화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야기다. 아이고, 이를 어찌, 어쩌면 좋아,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나무꾼 앞에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와 은도끼를 차례대로 내보이며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었다. 내 도끼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닌 쇠도끼라 대답한 나무꾼은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와 은도끼도 갖게 되고, 쇠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빠뜨려놓고는 금도끼도 내 것이요, 은도끼도 내 것이라 대답한 또 다른 나무꾼은 쇠도끼조차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정직함과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어”

작가가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출판사에서 먼저 작가에게 연락해 원고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몇날 며칠, 몇 년 동안 쓰고 다듬은 원고를, “출간문의 원고입니다”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고 답이 오기를 기다린다. 출판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출간하고 싶다는 답보다는 소중한 원고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원고는 저희 출판사의 기획방향과 맞지 않아 출간이

어렵다는 답을 받아도 멈출 수 없다. 주제도 선정하고, 글의 흐름도 좋지만, 단지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되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답을 받았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수십 군데도 넓은 곳에 출간문의를 해놓고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붙잡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닌, 또 다른 길 찾기인데 말이다.

“꿈, 바람, 목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마음 속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말하지만,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욕망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최고의 힘이며 최악의 힘이라는 말처럼, 원가를 바라며 해내고 싶은 마음은 적정선을 찾기 힘든 것 같다. 꿈도, 바람도, 사람과의 관계도, 목숨도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딱 한 명뿐인 사람들이 만큼 각자의 능력과 상황, 성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은 다름에도 말이다. 내 것도 아닌, 금도끼와 은도끼를 탐내다가 쇠도끼까지 잃어버린 나무꾼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도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싶다.

혼란·논란 남긴 ‘김대중 합동 마라톤’

육청이 주관하는 ‘제38회 교육감배 마라톤대회’와 통합 개최가 결정되면서 판이 커졌다. 총 참가 인원만 1만여명에 달하면서 목표에서 단일 스포츠 행사론 최대 규모가 됐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두 대회의 ‘결합’에서 비롯됐다. 교육감배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기려 순위 경쟁보다는 교육적 의미와 상징성에 방점이 찍혔다. 반면 김대중마라톤은 체력과 기록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 대회다.

도교육청 측은 “시기가 비슷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설

득력은 떨어진다. 뿐만 아니다. 김대중마라톤 참가자들은 적게는 1만5천원(5km 기준)에서 많게는 4만원의 참가비를 냈으나 교육감배는 무료였다. 형평성 시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스포츠 축제였던 마라톤이 본연의 의미보다 혼란이 먼저 떠오르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준비 부족과 배려 없는 통합은 축제를 갈등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보다 ‘완주’와 ‘안전’이다. 이번 대회가 논란의 기록이 아닌 경험의 교훈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 연 고흥 나로우주센터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총괄했다. 정부 주도 체계에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획기적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이 5대 우주강국에 합류했

다. 지속가능한 수송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 누리호 발사는 최초로 야간에 이뤄졌다. 500kg 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개발한 큐브위성 127기의 위성을 동시에 실어 최다 탑재라는 기록도 썼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보다 복잡하고 난도높은 임무에 나서고, 글로벌 상업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매우 뜻깊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가산단·발사장·연소 시험장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전초 기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나로우주센터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짙은 어둠 속에 붉은 불꽃이 치솟으며 굉음이 밀려오자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인파 사이로 환호와 탄성이 쏟아졌다. 이들은 1단, 페어링, 2단 분리 이어 13개의 위성도 지구 밖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누리호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비행으로가슴벅찬 감동을 안겼다.

우주 개발의 역사는 2009년 6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나로센터가 들어서면서다. 2013년 러시아의 도움으로 나로호가 발사됐고, 2021년 누리호가 1차는 실패했으나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2차와 3차를 성공하며 독자 능력을 보여주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기업 스페이스X처럼 민간 주도의 산업화로 그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2021년까지 1조 6천억원 규모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우주센터 유치와 함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복합도시 건설에도 적극적이다. 우주로 향하는 관문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누리호는 2023년에 5차, 2027년 6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본격적인 우주시대의 개막을 환영한다.

광주교육청 학생 바우처 카드 악용해 카드깡이라니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악용한 속칭 ‘카드깡’ 사례 등이 연이어 확인됐다. 이정선 시교육감 공약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림미 사업’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조사에서 꿈드림미 카드로 고가품을 구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카드깡을 하고, 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상품을 사는 등 9건을 적발했다.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유명 문구점에서 구입한 36여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개인 용도의 안경·렌즈, 소선택,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에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대담해지고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 게임 등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학생, 학부모의 부정행위라고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계속 방치한

다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파렴치는 견잡을 수 없이 음성화될 것이다. 불·탈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광주교육청은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도 적발해내지 못했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겠다.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지도·감독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전국적인 모범 행정으로 충분히 평가받을만한 정책이다. 첫 해인 2024년 203억원, 2025년 374억원을 집행했고, 2026년도 예산으로 473억원이 편성돼 있다. 관내 전체 중·고교생 8만4천963명으로 수혜 대상도 내년엔 확대된다. 중학생은 6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무겁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부모들의 안전한 생각도 바로잡아야 한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꿈드림미 바우처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각종 포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철저하게 검색해 뿌리뽑아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됐다.

다카시 광장

아버지의 응원

홍영숙

등 뒤에 붙여 하나
내 안의 연료였다

갈팡대던 순간마다
토닥이던 손길

곰셈 힘으로 더 밀어올린다

※ 시작노트

살다가 휘청일 때마다
문득 뒤돌아보면
나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어주던 당신 덕에
내 뒤통의 길을 당당히 걸어왔다
순간
아버지 마음을 읽어낸 그때
힘찬 울림이 함께 들렸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부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